

“GM 경영정상화 방안 협의할 것”

정부, 한국GM “오는 5월말까지 군산공장 차량생산 중단·공장 폐쇄” 결정에

정부는 13일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놓고 GM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회의를 개최해 “이번 GM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 및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 산업부 차관, 금융위 사무차장,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고형권 차관은 이날 회의 후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GM 관련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해 왔다”며 “향후 한국GM의 지난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 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GM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이어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GM측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한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이날 “오는 5월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사업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GM은 군산공장 직원 약 2000명(계약직 포함)의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측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해 오다가 전날 구두로 구조조정 계획을 전격 통보했으며, 노조측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이날 돌연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공장은 제베레 크루즈, 올란도 등을 생산하며 최근 3년간 가동률이 약 20%로 떨어졌다.

한국GM은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 지속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익산 농어촌공, 설 사회복지시설 사회공헌활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선호)는 13일 익산시 쌀전업농 연합회(회장 이성희)와 합동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하고, 팽봉동에 위치한 ‘익산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시설 주변 환경정리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김선호 익산지사장은 복지시설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자세에 크게 감명을 받았으

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익산지사 직원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한 진지상 차려드리기’,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집 고쳐주기’,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익산=장인원 기자

국내기업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 확대 나선다

해수부,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항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등의 항만 개발기반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항만 엔지니어링, 건설·운영사, 물류기업 등이 해외 항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新)북방 및 신(新)남방 정책을 반영하여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와도 그간 구축된 협력관계를 토대로 가시적인 수주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주로 협력국의 요청에 의존하던 사업 발굴 통로가 다각화되도록 우리기업의 민간채안을 적극 장려·지원한다.

이 외에도 사업유형을 공적개발원조(ODA)형(수원국 요청사업)과 성과창출형(수주가능성 사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성과창출형 사업에 우리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 수주지원단 파견 및 해당국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단순도급 위주의 수주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기업, 공공기업 3자가 함께 추진하는 ‘코리아 컨소시엄(가칭)’ 구성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최근 예는 참여기업이 사업개발, 자본투자, 금융조달, 제품구매, 항만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코리아 컨소시엄(가칭)’을 통해 발굴되는 핵심사업은 범정부 협업체대로 선정하여 유관부처 및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외교, 금융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핵심인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항만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자개발은행(MDB), 정책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ECA) 등 관련 금융기관과 연계하는 맞춤형 금융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항만개발 펀드를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독자적 금융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작년년부터 운영 중인 해외항만개발 정보시스템(www.co.sop.or.kr)에 국가별 항만사업 발주정보 및 최신 동향 등을 추가로 구성하는 한편, 국내 항만분야 건설사, 운영사, 선사,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메일송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에 수립한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항만개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

식약처,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매년 정부가 안전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올해에는 위·공관장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수산물(18품목)은 어류(광어·

꽁치·장어·조기·고등어·멸치·우럭·송어·참돔), 패류(굴·바지락), 갑각류(새우·게), 연체류(오징어·낙지),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등이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출하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오·남용 등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시·도 등과 협업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고시

산림청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을 반영한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 지역 896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480원/㎡ 이내다.

산지가격 반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637억 원에서 올해 약 8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2)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안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민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점심배식 도우며 이웃사랑 실천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사회복지단체 찾아 봉사활동 펼쳐

농협은행 고창군지부(지부장:이문식) 직원들과 전북농협 노동조합(위원장:박병철) 간부직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협은행은 10kg 50포대 약 100만원 상당의 농협쌀을 복지관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배식을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문식 지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서로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께한 박병철 전북농협 노동조합 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드릴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스님은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2011년부터 사회공헌활동 6년 연속 국내 1위를 기록한리딩뱅크로 2016년 기준 약 923억원을 사회공헌사업으로 환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